



해경스님의 경전읽기

법화경 ◎ 제바달다품 제12

믿음과 왕생극락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佛告諸比丘). 앞으로 오는 세상에 만일 훌륭한 신앙심을 가진 남자와 여인이 있어(未來世中若有善男子善女人) <묘법연화경>의 제바달다품을 듣고(聞妙法蓮華經 提婆達多品), 더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믿고 공경해 의심치 않고 당혹하지 않는 사람은(信心淨敬 不生疑惑者) 지옥·아귀·축생의 악한 갈래에 떨어지지 않고(不墮地獄餓鬼畜生), 사망의 부처님 앞에 태어날 것이며(十方佛前 那) 태어나는 곳에서 항상 이 가르침을 들을 것이다(所生之處 常聞此經). 만일 사람이나 천신으로 태어나면(若生人天中) 매우 높고 거룩한 정신적인 즐거움이 가득한 생활을 할 것이며(受勝妙樂) 부처님 앞에 태어날 경우에는 <부모의 몸을 의탁치 않고도 완전한 신체를 갖추어> 자연히 연꽃에서 <보살로> 태어나리라(若在佛前 蓮華化生).”

근래 <법화경>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흔히 ‘즉신성불(即身成佛)’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다.

오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 삼천대천세계와 맞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다. 믿음이란 그렇게 값진 것이니 믿음이 있어야만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한 것이 바로 값이 산천 대천세계와 맞먹는 보배구슬이다.

그런데 믿음이란 어디서 오는 것일까. 흔히 우리를 인간의 대뇌의 활동에는 좌우(左右)가 서로 다르다고 한다. 왼쪽 뇌는 ‘로고스 뇌’라 하여 말이나 논리나 계산 등을 관장하고 있으며 오른쪽 뇌는 ‘파도스 뇌’라 하여 울거나 웃거나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만족해하는 정동적(情動的)인 작용을 관장한다. 뿐만 아니라 세의 울음소리나 풀벌레 소리에 감동하는 등의 작용을 관장한다고 한다. 그리하여 믿음이란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감성적인 것이라고 한다. 중국의 천태대사(天台大師)는 좌뇌를 구사하여 천태의 철학을 구축하였으니 로고스철학으로서 정밀하게 짜 맞춘(精緻) 천태의 교화는 너무나 이성적인 것이어서 믿음을 강조하는 일원종(日蓮宗)의 법화경(法華經)을 믿고 있는 것이다.

“법화경 듣고 충실히 수행하면 연꽃가운데 보배자리서 탄생”

그런데 이 ‘즉신성불’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다. 하나는 <법화경>을 믿으면 곧 그 몸이 성불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승불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밀교에서의 ‘즉신성불’ 즉 “그 몸이 곧 부처이다”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 즉 이것이 무엇이냐”하는 선문답이 있게 된 것이 아닌가. 곧 그대가 부처이다. 그러나 부처다운 일을 해야 한다고 보면 틀림없다.

그런데 과연 <법화경>에 즉신성불에 관한 이야기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용녀성불(龍女成佛)’에서 볼 수 있다. 즉 사리프트라(舍利弗)가 용녀에게 질문하기를 “여자의 몸은 때묻고 더러워서 다섯 가지의 장애(五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여인의 몸으로 성불이 가능한가”라고 묻는다. 그러자 용녀는 그 값이 삼천대천세계와 맞바꿀 수 있는 보배구슬을 부처님께 바치니 부처님께서는 곧 그 구슬을 받으셨다고 한다. 그리고 하는 말이 “부처님께서 내가 바친 보배구슬을 받는 것 보다 성불하는 것이 더 빠르다”라고 하며 남방의 무무세계(無垢世界) 즉 청정한 세계에서 남자로 변하여 성불하였다는 것이 바로 즉신성불을 증명한 것이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받으신 보배구슬이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부처님께서 뇌물을 받

華(華)하고는 일치하지 않는 점이 많다.

오늘날의 <법화경> 신봉자들은 전자(前者)인 “그 몸으로 곧 성불한다”라고 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쿠타라지비(轉輪)가 변역한 <묘법연화경>에 귀의한다는 말인 “나무묘법연화경(南無妙法蓮華經)”을 구장(口誦) 즉 입으로 소리내어 부르기에 바쁘다. 사실 <법화경>에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다만 ‘여래신력품 제21’에는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이라고 소리쳐 부르는 대목은 있지만 ‘나무묘법연화경’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나라의 선종인 조계종에서는 그 소의 경전인 <금강경>의 제목인 ‘마하반야바라밀’이라고 하며, 중국의 천태종을 위시하여 고려 천태종 및 일본의 천태종에서는 무시무종(無始無終) 즉 영원한 부처님이라는 인도의 말, 아미타불을 부르며 정근하고 있다.

아무튼 <법화경> ‘왕보살본사품 제23’에 “어떤 여인이 <법화경>을 듣고 그 설한 바와 같이 충실하게 수행한다면 그 수명을 마친 뒤에 아미타불이 많은 큰 보살 대중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극락세계에 가서 연꽃 가운데의 보배자리 위에 태어날 것이다”라고 되어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우설정사 조설

5월 날씨치고는 무더웠다. 반팔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조차도 이마에 땀 한 방울을 닦느라 손등이 연신 얼굴로 향했다. 서울 지하철 관악역에서 승용차로 불과 5분 거리에 있는 경기도 안양 보장사를 찾은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13일 오후, 보장사 입구에 막 들어서자 왼쪽 편에 아치형의 미술관 같은 건물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석조에 세련미를 가미한 현대식 건물. 하지만 자세히 살핀 후에야 그 건물이 최근 완공된 남관당임을 알 수 있었다. 가파른 계단을 50개쯤 올랐을까, 자그마한 법당 앞에서 가사에 장식까지 수한 한 노스님이 물을 담은 대야를 마당으로 나르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승복만 아니었다면 대웅전 앞 석탑을 보수하기 위해 일하고 있는 인부들과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았다. “이런 날씨라면, 더구나 곳을 일할 때는 작업복을 입는 게 더 나을 텐데..”

학교법인 보문학원 이사장이자 재단법인 불교안양원 이사장인 덕해스님. 지금까지 일체의 언론에 단 한 차례도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었던 덕해스님의 모습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이사장 정도면..’이라는 생각은 보기 좋게 빛나갔다.

“별 볼일 없이 사는 늙은이를 뭐하러 보러 오셨나?” 스님 말씀과는 관계없이 다른 것을 여쭙었다. “지금까지 언론에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그랬지, 다른 이유는 없어요. 드러낼 것도 없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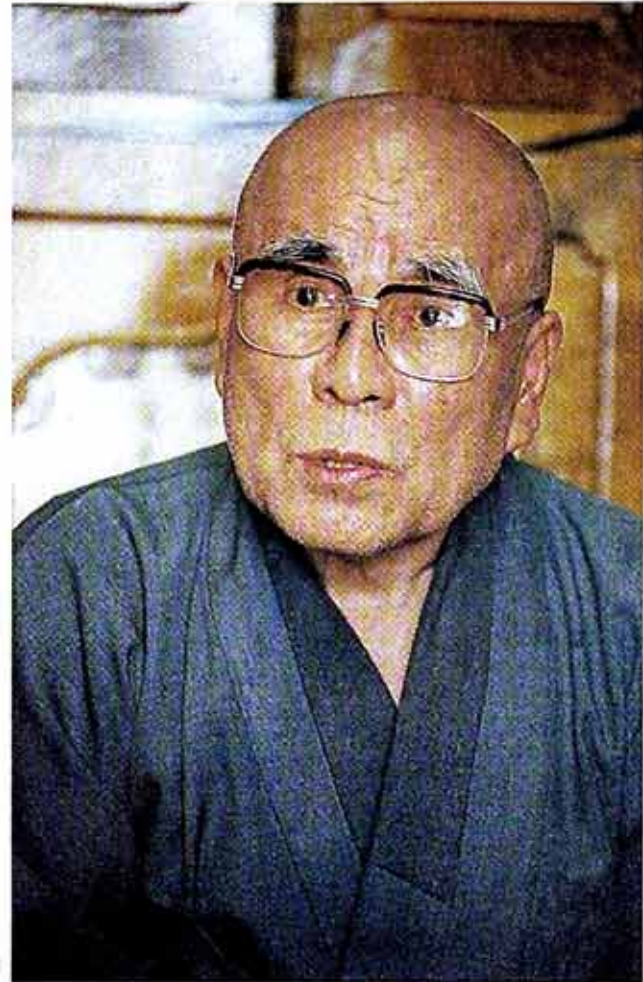
덕해스님이 보장사를 창건한 것은 1968년이다. 창건 당시 덕해스님은 부처님 씨를 뿌리는 교육불사를 하겠다는 원을 세웠다. 스님이 교육불사를 해야겠다고 원을 세운 때는 그러한 이유가 있다. 비구계를 받고 포교 일선에 나섰던 스님은 불자들이 기복적 신행 생활에 젖어 있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셨다. 아무리 부처님 정법을 말해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불자들은 많지 않았고, 특히 기성세대들은 그런 경향이 훨씬 심한 것을 알게 되면서 적지 않게 당황하셨다고 한다.

“이러다가는 불교의 앞날이 밝아지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도대체 제대로 배우려는 사람들도 없고,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아예 학생 때부터 신심이 돈독한 불자들을 키워야겠다는 결심을 하고는 오랜 기간동안 차근차근 준비해왔어요. 대전의 보문 중·고등학교를 인수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지요.”

보문 중·고등학교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쭙었다. 스님이 그토록 굳은 결심으로 오랜 기간 준비하며 심

혈을 기울여 온 결과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글쎄, 1년에 수계를 받는 학생이 1천명이 넘는다고 하면 답이 될까요. 13년 전 학교를 인수할 당시만 해도 소위 ‘강패 학교’로 낙인찍혀 있을 정도로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충청권에서도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학명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저 부처님 정법으로 매사를 처리하다보면 자연히 모두가 따리와 주리라는 믿을 하나 만



◀ 덕해스님은 선인선과(善因善果)의 법칙을 따를 때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고 늘 강조하신다.

일상생활

眞



덕해스

덕해스님은?

덕해스님을 잘 아는 사람들 마디로 스님을 ‘머슴 같은 부고’ 말한다. 잡다하고 굵은 일 아래 사람을 시키는 법이 없으며, 무리 어려운 일도 전혀 내색하지 않으며, 계율에 철저해 붙여진다. 특히 교육과 복지사업을 불교의 사회화함을 실천하고 면서도, 좀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로 유명하다. 개신교인인 안양시장이 안양노인복지센터를 영하고 있는데 대해 감사의 뜻 번이고 전해왔을 정도로 지도도 존경을 받고 있다.

스님의 뜻에 따라 서울불교원대학 개교준비에 여념이 없으며, 교안양원 김봉희 상무이사는, 까지 스님처럼 청렴하고 겸소

“佛子키워야...” 보문중고 인수

으로 일했습니다.”

스님의 출가동기가 궁금했다. 스님께서는 진주중학교 시절 6.25전쟁이 일어나 학도의용군과 같이 군대에 입대했고, 전쟁의 참화를 보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느꼈다고 하셨다. 특히 전쟁터에 끌려온 군인들 대부분이 농민들이고, 소위 ‘있는 집’ 사람들이 찾아보기 힘든 부조리한 현실을 개탄하게 됐고, ‘이런 세상을 바꿀 수는 없을까’고 민하다가, 부귀영화를 버리고 출가한

부처님을 떠올리고는 출가를 결심하게 됐다고 하셨다.

“수행은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스님의 교육철학과 출가동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궁금증이 풀리자, 공부나 수행에 관한 스님의 말씀이 듣고 싶었다. 더욱이 대강백인 권응스님의 제자 터에 끌려온 군인들 대부분이 농민들이고, 소위 ‘있는 집’ 사람들이 찾아보기 힘든 부조리한 현실을 개탄하게 됐고, ‘이런 세상을 바꿀 수는 없을까’고 민하다가, 부귀영화를 버리고 출가한

값았다. 다소 근엄해 보였던 표정 데간데 없었고, 답할 것이 있어 보라’는 장난끼마저 느껴졌다. “가부좌 틀고 참선을 한 해서 다 수행이 아닙니다. 있어도 서 있는 생각을 하면 서 것이요, 서 있어도 앉아있는 생각 면 앉아있는 것입니다. 마친가지, 행을 해도 번뇌에 사로잡혀 면 수행이 아니요, 사소한 해도 정신을 통일하면 그것(수행인 것입니다.

우리의 대표 브랜드-삼성

능력있는 남자라면, 유능할 뿐 아니라 여자를 사랑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이 남자, 그는 삼성카드를 씁니다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아는 당신- 당신의 행복에 삼성카드가 함께 합니다.

- 어느 곳을 가도 Pass! 애니패스카드 수도권 후불제 교통카드, 놀이공원·프로스포츠 무료입장, 영화관 1500원 한정할인
- 여자가 받는 특별한 혜택, 자연미카드 전국 130개 주요 백화점, 할인점 무이자 할부, 놀이공원 무료입장, 영화관 1500원 한정할인
- 쓸 때마다 포인트가 쌓이는 빅보너스카드 사용금액의 1% 적립, 보너스클럽에서는 최고 5%적립

365일 24시간 일일 서비스 www.samsungcard.co.kr ■ 상담 및 문의: 1588-8700 ■ 전화로 대응: 1588-8800 ■ 인터넷 대응: 삼성카드 홈페이지

SAMSUNG 삼성카드